

진다 폭포

CHINDA FALLS / OONO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하자.



おおいた豊後大野ジオパーク
Oita Bungo-ono Geopark

MAP

지오 사이트 주변

- 1 분고오노시 역사 민속 자료관
- 2 미야자코 동쪽 석불
- 3 미야자코 서쪽 석불
- 4 하라지리 폭포
- 5 쓰지가와라의 물 목욕탕
- 6 다이자코 계곡
- 7 데아이바시 다리
- 8 도도로바시 다리
- 9 진다 폭포
- 10 후코지 절 마애불
- 11 진카쿠지 절
- 12 온다케산
- 13 하쿠산 계곡
- 14 이와도 암굴 경관



주변 정보

선물과 기념품을 산다면!

미치노에키 오노

오이타현 분고오노시
오노마치 다나카 43-10
전화 0974-34-3231 주차 40대
영업시간 9:00~18:00
수제 만두와 채소 등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
레스토랑에서는 현지 특산 닭 '도요노사모'를
사용한 다양하고 풍부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오이타 분고오노 지오 파크 추진협의회 <http://bungo-ohno.com>
우879-7198 오이타현 분고오노시 미에마치 이치바 1200번지 분고오노시 상공관광과
TEL 0974-22-1001(대표) FAX 0974-22-1426



CHINDA FALLS / OONO

물의 흐름과 역사가 엇갈려 뒤섞인 곳

진다 폭포

진다 폭포는 오노가와 강 본류에 있는 '수컷 폭포'와 오노가와 강의 지류인 히라이가와 강에 있는 '암컷 폭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컷 폭포는 폭 97m 높이 17m, 암컷 폭포는 폭 4m 높이 18m이며 이 본류와 지류가 만나 폭포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 폭포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에 활동했던 '셋슈'가 수목화로 그렸으며, 에도 시대(1603~1868년)의 지지(지역의 자연 및 인문 현상을 백과사전식으로 기술한 책) '분고 국지'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직으로 나뉘어 13줄기를 이룬다'라고 표현된 폭포의 흐름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기구한 운명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 오노가와 강 통선과 어도터

에도 시대(1603~1868년) 후기부터 메이지 시대(1868~1912년)에 걸쳐 오노가와 강에는 통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폭포만큼은 배로 건너지 못해 사람과 짐은 여기서 옮겨 실었습니다. 은어같은 회유어도 이 폭포를 넘을 수 없었지만 1913년에 폭포의 위아래를 터널과 다리로 이어 은어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어도를 만드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노란 선 부분이 어도였다고 생각됩니다



2 진다 발전소터

진다 폭포에서는 폭포의 낙차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였습니다. 1909년 폭포 위에 독을 만들어 발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전기는 오이타와 벳푸 간 노면 전차로 보내져 일본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후 독의 높이를 더욱 높여 발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한편에서는 물살에 의해 폭포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낙수를 멈춘 탓에 폭포의 경관은 손상되어 버렸습니다.



구 발전소 조업 당시

※현재의 발전소는 2km 정도 하류로 옮겨진 것입니다.

경관 복원 공사

지역 사람들은 폭포의 부활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단순한 암벽으로 변한 폭포는 1996년 마침내 부활했습니다. 규슈 전력이 더 이상 절벽이 붕괴되지 않도록 대규모 공사를 하였고 '수직으로 나뉘어 13줄기를 이룬다'라고 써 있는 셋슈의 진다바쿠즈(진다 폭포도)를 참고 하여 경관 복원 공사를 하였습니다.



낙수가 없던 무렵의 진다 폭포

아소의 대분화로 탄생하여 근대화에 활용되었다

진다 폭포를 형성하고 있는 암석은 9만년 전 아소산 대분화의 화쇄류에 의해 생긴 것입니다. 아소 용결 응회암이라 불리는 화쇄류가 식으면서 굳어진 바위로 수직 방향으로 무수한 균열이 생겨 이러한 경관을 낳게 되었습니다. 세로 방향으로 바위가 무너져 내리면서 수직으로 깎인 벵랑이 만들어 졌으며 이것이 분고오노 지오 파크의 특징적인 경관 중 하나입니다.

자연에 있는 바위를 잘 활용한 것은 좋았는데 한때는 폭포가 없어지고 말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을 다시 사람들 손으로 폭포로 되돌려 놨어.



지오 가이드

제방

수컷 폭포

1



포토존
표지 사진은
여기에서
촬영하였습니다.

오노가와 강

발길
주의

발전용수 방수구

포토존
진다 발전소터와
수컷 폭포를 볼 수
있습니다.

2



주차장

화장실

대형 버스 주차장

히라이가와 강

암컷 폭포

약 600년
전에 그린
수목화와
여기가 다른
것일까?

거장이 그린 유명한 폭포



셋슈의 '진다바쿠즈(진다 폭포도)' (복제) 분고오노시 오노 출장소 소장



포켓 파크